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

저희는 저희의 예루살렘 공동체인 아하발 예슈아에서 컨퍼런스를 막 마쳤습니다. 저희는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재확인하고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나흐솔림¹이라는 키부츠에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 최초의 공동체의 몇 가지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예루살렘** –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였습니다. 마지막은 처음과 같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메시아닉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은 예슈아의 예루살렘 재림을 앞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목적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원칙들은 세계 어느 곳에든 적용이 가능하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위치는 성경에서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마 23:37-39, 사 2:1-4, 율 2:32).
2. **성령** – 그 공동체는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무리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무리 가운데 영으로 거하고자 뜻하셨습니다. 바로 이 때에 하나님의 꿈이 최초로 실현된 것입니다.
3. **능력 체험** – 그들은 성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불의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하며 말씀 선포와 찬양과 예언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없는 공동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좀 “이상해” 보였지만, 그들은 예슈아의 지시에 순종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4. **샤부오트(오순절)** – 참된 성도들이라면 언제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성령의 강림은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샤부오트(칠칠절)라는 절기는 “정하신 때”였습니다. 저희가 성경의 절기를 기념하는 것은 부흥과 전도, 그리고 예언을 가르치는 데에 돌파구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5. **유대 전통의 균형** – 메시아닉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 전통을 지금의 공동체에 얼마나 적용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신약적 관점은 균형적인 것입니다. 초대 사도들은 저희 민족의 문화적 틀 속에 살았지만, 랍비 율법에 전적으로 굴복하진 않았습니다 (행 4:19, 15:10, 21:20; 롬 11:28).
6. **담대한 전도** – 시몬(베드로) 및 다른 제자들은 예슈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전하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슈아의 이름을 이 곳 이스라엘에서 선포하는 일에 대해 영적 반발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 메시지의 중심이 되실 것입니다: “나사렛 예슈아 (2:22),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슈아 (2:36), 예슈아의 이름으로 (2:38).”
7. **세계적 비전** – 초대 제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세계 전도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행 1:8). 그리고 자신들의 성령 체험이 마지막 때에 성취될 세계적 부흥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행 2:17). 저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가

¹ Nachsholim(נחשולים)

열방의 성도들에게 부흥의 불꽃이자 전도의 격려가 될 것이라는 비전과 소망을 공유합니다.

8. **히브리어** – 사도들은 설교 대상자들을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행 2:14, 22, 29). 그들은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행 6:1, 21:40, 22:2, 26:14). 저희의 예배, 강의 그리고 공동체 활동은 히브리어로 진행됩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국가와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히브리어의 회복은 예슈아의 부활과 유사합니다. 복음은 이 곳에서 히브리어로 전해질 때 훨씬 잘 수용됩니다. 토착어의 사용과 젊은 지도자 훈련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식민적 선교에서 사도적 돌파구로 향하는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9. **현지의 핵심과 이민자들** – 이스라엘은 이민자들의 국가입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의 성도 대부분은 이민자 출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는 지역 내 제자들 120명을 핵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이민자였던 3,000명의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천하 만국의 헌신된 이들”** – 행 2:5. 그들의 공동체에는 대부분이 이민자였지만, 현지 제자들이 핵심 지도층이었습니다.
10. **공동체 생활** – 초대 제자들은 완전한 동역 관계 속에서 삶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를 공동의 소유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임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모임을 초월했습니다. 서로를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요 19:26-27, 막 3:33-35).
11. **언약적 관계** – 공유 생활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 초대 제자들은 언약과 충성, 청렴의 원칙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신뢰를 쌓는지, 어떻게 서로와 교통하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죄악에 맞서는지, 어떻게 권세에 순복하는지, 어떻게 장기적 관계에 헌신할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12. **크고 작은 모임들** – 오늘날, 모임을 크게 가져야 하는지 작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초대 성도들은 두 가지 형태를 다 추구했습니다 (행 1:15; 2:1, 41, 46). 대형 모임에는 역동적인 능력의 표출이 있었고, 소형 모임에서는 친밀한 관계와 책임감이 형성됐습니다.
13. **초자연적 나눔** – 초대 제자들은 급진적으로 돈을 헌납했는데, 심지어 자기 소유를 팔기까지 했습니다. 첫 단계는 빛을 진 신앙의 동료들이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제시한 세계적 비전을 좇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돈을 사도들의 발에 두었습니다”** – 행 4:35, 37, 5:2. 이러한 초자연적 베품은, 정욕과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14. **사도들의 리더십** – 초대 신앙의 공동체는 목회자들이 단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5중 사역의 공동 인도가 있었습니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회자, 그리고 교사 (행 1:11; 2:42; 4:36; 5:18, 29; 8:14; 11:1; 13:1; 14:14; 15:6; 15:32; 16:4; 20:28; 21:8; 21:9; 엡 4:11). 이러한 지도층의 다양성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

- 이러한 사도행전 2 장의 비전이 아하발 예슈아 및 모든 메시아닉 공동체 가운데 성취되도록
- 전통적 유대교 출신으로 새로 거듭나, 이번 주에 물로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브라² 신자 R을 위해
- 이스라엘 전역에서 전도와 제자 훈련에 계속적 돌파구가 열리도록

² Sabra(צבר): 이스라엘 토박이